

## 울산시의 남녀대학생들의 음주 행태와 인식 조사 및 비교 연구

홍순명 · 양정아 · 정순임 · 조지예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Comparison of drinking behaviors and perception of the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in Ulsan City

Soon-myung Hong · Jung-a Yang · Soon-im Jung · Jee-ye Ch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Ulsan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lcohol drinking and the related factors of 300 university students. They experience the first drinking through family ancestor ceremony(total 68.7%, male 64.2%, female 73.2%) with curiosity. They usually drink for their special day(total 41.1%, male 47.0%, female 34.9%) and the social gathering(total 34.0%, male 21.2%, female 47.0%) using under 10%(total 74.3%, male 79.5%, female 69.1%) of their pocket money. Mean frequency of drinking is 2~3times a month(total 37%, male 34.4%, female 39.6%), more than once a week(total 35%, male 44.4%, female 25.5%). Especially males drink more than once a week(44.4%), while females are once or twice a month(39.6%). There is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m, But, when we consider women's sensitive body condition, we need more educational programs for women.

Types of alcohol are beer(total 50.3%, male 54.3%, female 46.3%), soju(total 33%, male 19.2%, female 47%). They drink 3-4bottles of beer for men(37.1%) and 1-2bottles for female(40.9%). Frequency, types and amount of alcohol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Clinical symptoms of drinking are drowsiness(72.3%), fatigue(70.7%), thirst(66.7%), dizziness(64.3%), flush, headache and vomit. In Korea,

when we drink alcohol, we usually enforce the other people to drink with. It makes some problems of relationship among people. When people are pushed to drink, they(total 43.3%, female 34.9%, male 51.7%) accept and drink it.

Korean opinions about alcohol seem to be too generous. Most of Ulsan area college students experience drinking when they were too young. Main reasons of drinking alcohol are for their special days and social gatherings. We have to stop enforcing others to drink and we have to learn to refuse wisely other's recommendation of drinking.

Key Words : College student(대학생), drinking habit(음주습관), alcohol(술), 음주빈도(frequency of alcohol)

## I. 서론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Wechsler, Kuo, Lee, & Dowdall(2000)의 연구에서는 21세 이상의 대학생 음주율이 74%로 나타났으며 홍콩의 대학생들은 음주율이 72.6%(Leung & Arthur, 1999)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음주율은 94.9%(1)로 높은 편이며, 여대생의 월간 음주율도 89.2%로(2) 높은 편으로, 성인의 음주율인 69.8%(남자 82.7%, 여자 59.5%)(3)보다 더 높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Johnson 등의 연구 결과(1986, 재인용)로는 남자 청소년보다 자신의 문제로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술을 마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동기와 음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대처동기와 음주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들에서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처수단으로서 음주를 할 때, 여자 청소년들이 폭음을 하거나 문제성 음주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Bradizza, 1999). 성인 여성의 경우 또한 음주문제를 가진 여성이 음주 문제를 가진 남성보다 더 많은 정신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도 남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이며(4), 여성문제 음주자의 경우, 간경화의 위험(17배), 뇌손상과 사망률도 높다는 보고도 있다(5).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음주가 미래의 모성으로 연결됨을 고려할 때,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술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허용적인 음주 환경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대학생생활 접하게 되는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들은 공공연하게 음주가 허용이 되는 시기에 도달하며(김영란 2000), 과중한 입시준비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과 일탈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선택하는(risk taking)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된다(Chassin et al., 1996). 대학생의 음주는 대학 낭만의 하나로 믿어져 왔으며 이런 문화는 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학생들의 음주를 부추긴다. 음주는 습관성이므로 대학 시절의 음주 행위는 일생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6). 또한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 음주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음주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성인이 되어 문제 음

주 습관을 가지게 되는 관문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성인 시기의 문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습관 형성을 예방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크게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음주양태와 문제 음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의 첫걸음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성인의 음주율이 인천, 대구, 경기, 서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보건복지부 2003)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의 음주율과 음주량, 음주횟수, 음주시작연령, 동기, 음주후의 행동변화 등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과 영양이라는 관점에서 울산지역 성인의 절주 및 단주 사업의 기초적 자료로 삼으려 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음주실태 조사를 위한 본 연구는 울산 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들 총 300명(남 151, 여 149)을 설문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일반 환경요인과 음주력, 현재의 음주량, 음주후의 신체적 임상증상과 학교수업에 미치는 영향, 음주와 태도, 음주와 사회문화, 여러 가지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남녀별로 비교분석하고 통계 처리 하였다.

### 2. 연구 방법

설문지 내용은 음주 실태조사와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음주환경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환경, 음주력과 음주량, 음주와 태도, 음주와 사회문화로 문항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환경으로는 대학생들의 분포와 주거형태를 조사하였으며, 음주력으로는 음주 빈도와 음주량과 종류, 첫 음주 연령, 음주 비용, 음주 이유, 음주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음주와 건강의 내용으로는 음주후의 임상증상과 그 다음날의 임상증상의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음주와 태도는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형태를 통해 일반적 음주 태도를, 한국인 특유의 권주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그 대응방식을 조사하였다.

###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일반적 환경 등 기본적인 자료 처리는 항목 별 단순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음주력과 음주 태도와 사회문화적 자료는 남녀별로 백분율,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비교 조사하여 독립 표본검정인 t-test와 분산분석을 통해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은 울산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8세(남 18~27세, 여 18~38세) 남학생 151명, 여학생 14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22%, 4년제 대학생 77%, 대학원생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상태는 가족과 함께 기거 82%, 하숙 0.7%, 기숙사 8.7%, 자취 8.7%를 차지하였다.

Table 1. Types of residence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umber(%)

		Male	Female	Total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parents	113(74)	133(89.3)	246(82)
	Dormitory	16(10.6)	10(6.7)	26(8.7)
	Living alone	20(13.3)	6(4.0)	16(8.7)
	Boarding house	2(1.3)	0	2(0.7)
Type of college	2-year college	51(33.8)	15(10.1)	66(22)
	University students	100(66.2)	131(87.9)	231(77)
	Graduate students	0	3(2.0)	3(1)
	Total	151(100)	149(100)	300(100)

#### 2. 음주력과 음주비용

첫 음주 경험 시기는 Table 2와 같으며, 초등학교 전 4.3%,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등학교 84%, 대학교 1%등으로 남녀학생들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고등학교에서 음주 경험과 음주 시작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생들의 음주가 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음주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교적 개방적으로 여겨지는 북미의 캐나다의 경우 9~12학년에서 음주를 대체로 시작하긴 하나 24%의 학생들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8)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개방된 자세가 청소년의 음주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경향(9,10)과 높은 성인의 음주율과 연결된 문제로 여겨진다.

처음 술을 마신 이유로는 명절 68.7%, MT 및 수학여행 15%, 호기심 7.7%, 생일 4.3%, 고민4.3% 순으로 가족 내에서 제례 및 각종 모임에서 성인들의 용인 하에 미성년자의 음주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가 음주의 경험 연령을 앞당기고 있으며, 우리나라 음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음주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미국의 'The Leadership to Keep Children Alcohol Free'와 같은 기구의 예처럼 10대들의 정서적인 변화와 부모 자녀간의 관계형성과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한국적 자료(11)의 시도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는 기념일 41%, 사교 34%, 스트레스 해소 13.7%, 시

힘끝난 후 6%, 습관적으로 3.3% 순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기념일과 사고 순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사고와 기념일 순을 보이며 통계상의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다.

음주에 사용하는 한달 용돈 대비 비율은 10%이하가 74.3%(남 79.5%, 여 69.1%), 용돈의 20%이하가 21.3%(남 13.9%, 여 28.9%)로 조사자 대부분은 용돈중 10~20%이하의 비용을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History, first experience, reason and paying of drinking

		male	female	total	$\chi^2$
First experience of drinking	Before primary school	9(6.0)	4(2.7)	13(4.3)	6.065
	Primary school	7(4.6)	3(2.0)	10(3.3)	
	Middle school	6(4.0)	10(6.7)	16(5.3)	
	Highschool	127(84.1)	131(87.9)	258(86.0)	
	College	1(0.7)	1(0.7)	2(0.7)	
	Work place	1(0.7)	0	1((0.3)	
Reason of first drinking	Ceremony of family	97(64.2)	109(73.2)	206(68.7)	12.899*
	Curiosity	7(4.6)	16(10.7)	23(7.7)	
	School trip	13(8.6)	8(5.4)	21(7.0)	
	Membership training	16(10.6)	8 (5.4)	24(8.0)	
	Birthday	10(6.6)	3(2.0)	13(4.3)	
	Worries	8(5.3)	5(3.4)	13(4.3)	
Main reason of drinking	Anniversary	71(47.0)	52(34.9)	123(41.0)	30.920***
	Social gathering	32(21.2)	70(47.0)	102(34.0)	
	Get rid of stress	26(17.2)	15(10.1)	41(13.7)	
	Finish the exam	8(5.3)	10(6.7)	18(6.0)	
	Habitual	9(6.0)	1(0.7)	10(3.3)	
	Doing nothing	5(3.3)	1(0.7)	6(2.0)	
Ratio of the pocket money for drinking	Under10%	120(79.5)	103(69.1)	223(74.3)	23.206**
	Under20%	21(13.9)	43(28.9)	64(21.3)	
	Under30%	7(4.6)	0(0.0)	7(2.3)	
	Under40%	2(1.3)	1(0.7)	3(1.0)	
	Under50%	0	2(1.3)	2(0.7)	
	Over50%	1(0.7)	0	1(0.3)	

\* p<0.05, \*\* p<0.01, \*\*\* p<0.001

number(%)

### 3. 음주행태와 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음주빈도는 월 2~3회가 37%, 주 1회 이상이 35%, 월 1회 미만이 19%, 금주인원은 7.3%였으며 매일 마시는 사람은 1.7%로 월 2~3회, 주 1회 이상의 음주가 현 조사 결과로는 보편적 경향임을 나타내었다. 이원재(2001)의 조사결과인 주 1~2회 29.8%, 한 달에 1~2회 이하 29.5%, 열흘에 1회 21.3% 보다 높은 음

주 음을 보여주었다. 남학생의 경우 '주 1회 이상' 44.4%, '월 2~3회' 34.4%, '월 1회 미만' 12.6%로 이원재의 자료에서 주 1~2회 33.2%, 열흘에 한번 25.3%, 한달에 1~2회 20.9%의 결과보다 남학생의 경우 또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월 2~3회 39.6%, 주 1회 이상 25.5%, 월 1회 미만 25.5%로, 한 달에 1~2회 39.8%, 주 1~2회 25.7%, 열흘에 1회 16.5%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음주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 < 0.001$ ), 여대생의 음주 빈도가 일주일에 2~3회 이상이 32.1%라는(보건 복지부 2001) 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음주 결과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피해와 건강상의 우려를 고려할 때, 여대생에 대한 음주 교육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술의 종류는 맥주 50.3%, 소주(과일소주) 33%, 양주(칵테일)이 11.3%, 포도주(과일주)는 4.3%, 막걸리 1.0% 순이었다. 주로 이용하는 술인 맥주와 소주의 1회 음주량을 살펴보면, 맥주는 1~2병 31.3%, 3~4병 30%, 1병 이하는 26.7%, 5~6병이 7%, 그 이상 마시는 사람도 5%였으며, 소주는 1병이 33.3%, 반병이 29.7%, 1~2잔은 20.7%, 2병은 10%, 그 이상도 6.3%였다. 음주량은 남자는 맥주 3~4병이 37.1%, 여자는 1~2병이 40.9%, 소주는 남자 1병이 41.1% 여자는 반병이 38.3%로 가장 높아서 여대생의 양이 남학생이 비해 낮았으나, 신체의 차이를 감안할 때 여성의 음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음주자의 건강이 우려됨을 알 수 있었다.

음주빈도와 술의 종류 및 1회 음주량(각  $p < 0.001$ )은 남녀의 유의적인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음주 후 결석하지 않는 경우가 55%(남 51.0%, 여 59.1%)를 차지하였으나, 45%의 학생들이 결석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음주 후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Frequency, kind, amount of drinking and influence on the school lesson

		male	female	total	$\chi^2$
Frequency of drinking	No drinking	8(5.3)	14(9.4)	22(7.3)	16.291***
	Less than once a month	19(12.6)	38(25.5)	57(19.0)	
	Two times a month	52(34.4)	59(39.6)	111(37.0)	
	More than once a week	67(44.4)	38(25.5)	105(35.0)	
	Everyday	5(3.3)	0	5(1.7)	
Kind of drinking	Soju(fruit soju)	29(19.2)	70(47.0)	99(33)	33.424***
	Beer	82(54.3)	69(46.3)	151(50.3)	
	Whisky(cocktail)	24(15.9)	10(6.7)	34(11.4)	
	Korean rice wine(Mackuly)	3(2.0)	0	3(1.0)	
	Wine	13(8.6)	0	13(4.3)	
Mean one time drinking (Beer)	Less than one bottle	29(19.2)	51(34.2)	80(26.7)	45.129***
	One or two bottles	33(21.9)	61(40.9)	94(31.3)	
	Three of four bottles	56(37.1)	34(22.8)	90(30.0)	
	Five or six bottles	19(12.6)	2(1.3)	21(7.0)	
	More than six bottles	14(9.3)	1(0.7)	15(5.0)	

<계속>

Mean one time drinking (Soju)	One or two glasses	16(10.6)	46(30.9)	62(20.7)	54.944***
	Half of bottle	32(21.2)	57(38.3)	89(29.7)	
	One bottle	62(41.1)	38(25.5)	100(33.3)	
	Two bottles	25(16.6)	5(3.4)	30(10.0)	
	More than two bottles	16(10.6)	3(2.0)	19(6.3)	
I skip lesson after drinking	Yes	74(49.0)	61(40.9)	135(45.0)	0.767
	No	77(51.0)	88(59.1)	165(55.0)	
Total		151(100)	149(100)	300(100)	

\* p<0.05, \*\* p<0.01, \*\*\* p<0.001

number(%)

#### 4. 음주 후의 신체 변화

음주 직후의 신체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졸음 72.3%, 피곤함 70.7%, 갈증 66.7%, 어지러움 64.3%, 피부홍조 56.3%, 두통 49%, 횡설수설 42.7%, 구토 41.7%, 호흡곤란 13.7%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평균 비교로는 남학생의 경우, 갈증(2.0), 졸음(2.17), 피로(2.10), 홍조(1.87), 어지러움(1.72), 횡설수설(1.60)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졸음(2.31), 홍조(2.21), 피로(2.13), 갈증(2.12), 어지럼증(2.07), 두통(1.72), 횡설수설(1.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남녀 간에는 어지럼증(p<0.001), 홍조(p<0.01), 졸음, 두통, 호흡곤란(p<0.05)에서 통계상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들이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음주량과 빈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의 증세는 더욱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lbe 4. Subsequent clinical symptom to the drinking

number(%)

		male	female	total	t-value
Headache	Mean	1.52±0.72	1.72±0.74	1.62±0.73	-2.320*
Dizziness	Mean	1.72±0.75	2.07±0.84	1.89±0.82	-3.816***
Vomitting	Mean	1.52±0.71	1.59±0.81	1.56±0.76	-0.765
Difficult breathing	Mean	1.13±0.47	1.25±0.57	1.19±0.52	-2.042*
Flushing	Mean	1.87±1.05	2.21±1.17	1.87±1.05	-2.655**
Drowsiness	Mean	2.04±0.94	2.31±0.96	2.17±0.96	-2.449*
Fatigue	Mean	2.02±0.91	2.13±0.88	2.08±0.89	-1.108
Thirst	Mean	2.10±0.94	2.12±0.96	2.11±0.95	-0.196
Random talk	Mean	1.60±0.87	1.63±0.84	1.62±0.86	-0.285

1. None 2. A little 3. somewhat 4. Serious

\* p<0.05, \*\* p<0.01, \*\*\* p<0.001

음주 다음날 증세로는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피곤함 70.7%, 갈증 66%, 두통 56%, 졸음 47%, 어지러움 26.7%, 구토 16%, 피부홍조 8%, 호흡곤란 3.3%를 나타내었으며, 갈증(2.13), 피로(2.12), 두통(1.84)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느끼고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갈증(2.13), 피로(2.12), 두통(1.84), 졸음(1.68)을 여전히 호소함으로서 음주 다음날 생활의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남녀 간에는 모든 증세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토( $p<0.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 Clinical symptom of the next day after drinking number(%)

		male	female	total	t-value
Headache	Mean	1.78±0.90	1.89±0.89	1.84±0.90	-1.073
Dizziness	Mean	1.42±0.73	1.57±0.76	1.50±0.74	-1.715
Vomitting	Mean	1.14±0.42	1.29±0.63	1.21±0.54	-2.429*
Difficult breathing	Mean	1.02±0.14	1.05±0.21	1.03±0.18	-1.307
Flushing	Mean	1.10±0.38	1.11±0.39	1.10±0.38	-0.182
Drowsiness	Mean	1.70±0.82	1.65±0.84	1.68±0.83	0.532
Fatigue	Mean	2.09±0.92	2.16±0.90	2.12±0.91	-0.715
Thirst	Mean	2.21±1.01	2.05±0.95	2.13±0.98	1.396

1. None 2. A little 3. somewhat 4. Serious \*  $p<0.05$ , \*\*  $p<0.01$ , \*\*\*  $p<0.001$

## 5. 음주관련 태도 조사

한국인의 음주문화를 살펴보면, 주로 직장의 상사나 동료와의 모임에서 많이 마시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술자리가 업무의 연속이 되며, 복잡한 사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술자리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잘못된 인식과 비합리적이고 이중적인 음주문화와 대체로 강권하는 사회적 분위기(20)가 있다. 이에 술 권유 시 대처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술 권유 시 '그냥 마신다'가 43.3%(남 51.7%, 여 3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51.3%(남 49.0%, 여 53.7%) '기분 상할까봐' 17.3%(남 20.5%, 여 14.1%)로 본인의 의지대로 술을 마시기보다는 주위의 여건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래 Table 6에 나타나 있다.



Table 6. How to react and the reason of reacting when you were pushed drinking

		male	female	total	$\chi^2$
How to react when you were enforced to drink	I don't refuse and just drink	78(51.7%)	52(34.9%)	130(43.3%)	17.071**
	I refuse it gently	33(21.9%)	36(24.2%)	69(23.0%)	
	I throw it away without notice	12(7.9%)	24(16.1%)	36(12.0%)	
	I drink a juice instead alcohol	11(7.3%)	22(14.8%)	33(11.0%)	
	Extra	10(6.6%)	5(3.4%)	15(5.0%)	
	I try to switch the mood	5(3.3%)	4(2.7%)	9(3.0%)	
	I go out for a while.	2(1.3%)	6(4.0%)	8(2.7%)	
Reason that you didn't refuse when you were pushed to drink	I thought I had to drink	74(49.0%)	80(53.7%)	154(51.3%)	7.338
	I didn't want to hurt his mind	31(20.5%)	21(14.1%)	52(17.3%)	
	I want to be sociable	12(7.9%)	17(11.4%)	29(9.7%)	
	I was enforced continuously	10(6.6%)	15(10.1%)	25(8.3%)	
	Seniors or boss recommend	10(6.6%)	10(6.7%)	20(6.7%)	
	Someone enforced violently	2(1.3%)	1(0.7%)	3(1.0%)	
	Extra	12(7.9%)	5(3.4%)	17(5.7%)	

\* p<0.05, \*\* p<0.01, \*\*\* p<0.001

number(%)

### 6. 음주 후의 발생 문제

음주 후 발생 문제로는 Table 7에 나타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기타 31.8%, '주위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말 들음' 22.5%, '경제적 어려움' 14.6%, '싸운 적이 있다' 10.6%로 대답하여 술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기타 49%, '주위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말 들음' 21.5%, '경제적 어려움' 14.1% 순으로 조사되어 통계상의 차이(p<0.01)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 Hardship happened after drinking

	male	female	total	$\chi^2$
I had have a fight	16(10.6%)	5(3.4%)	21(7.0%)	16.508* p<0.05
I had been injured	7(4.6%)	7(4.7%)	14(4.7%)	
People advised to stop drinking	34(22.5%)	32(21.5%)	66(22.0%)	
Social relation problem	11(7.3%)	6(4.0%)	17(5.7%)	
Doctor prohibits drinking	13(8.6%)	5(3.4%)	18(6.0%)	
Economic hardship	22(14.6%)	21(14.1%)	43(14.3%)	
Extra	48(31.8%)	73(49.0%)	121(40.3%)	

\* p<0.05, \*\* p<0.01, \*\*\* p<0.001

number(%)

## 7. 음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음주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는 남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p < 0.05$ )는 결과에 긍정적인 대답을 보여준 이외에는 남녀 간의 통계상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Table 8에 나타내었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된 경향을 보였으며, 음주가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3.0), '모임을 즐겁게 한다'(2.97),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2.75), 등 음주에 대해 긍정적 인식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폭력을 하게 된다'(1.75), '음주가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된다'(2.02), '가족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2.06),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2.27)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음주 시 태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내가 술을 억지로 권유한다'(1.75), '상대방이 나에게 술을 억지로 권유한다'(2.11), '음주 운전을 하기 쉽다'(1.91), '음주로 인해 말을 실수한다'(2.29), '고성방가를 한다'(2.06) 등으로 대체적으로 음주과정이나 이후에 대한 태도변화의 평균은 높지 않았으며,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건강을 해친다'(2.81), '기억력을 흐리게 한다'(2.63) 등으로 음주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음주가 개인의 학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인 '학업이나 직장에 지장을 준다'(2.47), '경제적 타격을 준다'(2.66)는 높은 평균을 보여 대체적으로 학업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음주 태도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음주가 사회적인 관계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주 후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 경향을 보여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 Perception and attitude of drinking number(%)

		male	female	total	t-value
It releases the stress	Mean	2.75±0.68	2.60±0.57	2.68±0.63	2.081*
It helps social relationship	Mean	3.01±0.72	2.99±0.61	3.00±0.67	0.344
It provokes violence	Mean	1.81±0.75	1.70±0.85	1.75±0.80	1.190
It makes gatherings good	Mean	2.95±0.71	2.99±0.59	2.97±0.65	-0.438
I enforce the other people to drink	Mean	1.79±0.76	1.70±0.59	1.75±0.68	1.147
I was enforced drinking by others	Mean	2.05±0.70	2.18±0.60	2.11±0.65	1.790
It gives bad influence to the family	Mean	2.03±0.84	2.10±0.68	2.06±0.76	-0.842
I make an impropriety in speech	Mean	2.31±0.86	2.26±0.69	2.29±0.78	0.550
drunken driving	Mean	1.91±0.92	1.91±0.86	1.91±0.89	-0.053
loud talking and singing	Mean	1.99±0.86	2.13±0.86	2.06±0.86	-1.347
It makes us unhealthy	Mean	2.72±0.79	2.90±0.67	2.81±0.74	-2.174*

1.Absolutely no 2.No 3.Yes 4.Absolutely y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와 태도를 파악하고자 울산 시내 2년제와 4년제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8세의 대학생(남 151명, 여 149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 졌으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음주력

음주의 시작 연령과 동기의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가 고등학교 때 음주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용인 하에 명절에 68.7% 학생들이 처음 음주를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음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음주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이며, 일찍 시작한 음주와 성인기의 잘못된 알코올 의존과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가정 내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관련 성인들의 태도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동시적 교육과 올바른 음주습관을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음주형태

전체 음주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양과 횟수로 조사되어 남녀별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음주 비용은 74.3%의 학생이 용돈대비 10% 이하를 쓰며, 친구들과의 모임형태인 기념일과 사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음주량은 남자는 맥주 3~4병(37.1%), 여자는 1~2병(40.9%), 소주는 남자 1병(41.1%) 여자는 반병(38.3%)으로, 여대생의 양이 낮은 유의적인 통계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p < 0.001$ ), 신체의 차이를 감안할 때 여성의 음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대생 음주자의 건강이 우려되며, 음주 후의 여러 가지 여성의 피해상황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음주 및 절주교육이 필요하다.

### 3. 음주 후의 신체 변화

음주 직후의 신체변화는 졸음, 갈증, 피곤함을 대체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그 외 피부 홍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음주 다음날은 대부분 증세의 완화를 보였으나 갈증, 피로, 두통 등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느끼고 있으며, 갈증, 피로, 두통, 졸음 등을 여전히 호소함으로써 음주 다음날 생활의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 4. 음주와 사회

음주 후 발생문제로 주위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말을 듣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싸운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술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형성과 경제적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도 45%(남 49%, 여 40.6%)를 차지하여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음주 후에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 시 술을 권유 받았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위기

에 이끌려서, 기분 상할까봐 그냥 마시고 있는 것으로(전체 43.3%, 남 51.7%, 여 34.9%) 조사 되었으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위기에 이끌려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본인의 주량이나 의지보다는 주위의 분위기에 의해 음주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전체 사회적인 음주의 규제나 절주문화의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음주와 태도

음주가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며, 모임을 즐겁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불화의 원인 및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폭력을 유발한다는 대답에는 낮은 평균을 보여 대체적으로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기억력을 흐리게 한다는 문항에는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여주며, 음주가 개인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결과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음주가 사회적인 관계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음주의 긍정적인 사회적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으며, 음주 후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 음주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가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되고 있지만, 청소년과 대학생, 특히 여대생의 음주율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진출 할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습관은 직장생활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음주 결과로 연결되며, 직장 내 음주행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교육은 실제적 접근인 건강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사회적인 만남의 일환으로 음주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건전한 만남의 장으로서의 절주 모임을 형성해 나갈 대안적 모임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모임의 일환으로 강압적인 권주문화의 분위기는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 할 때, 음주가 직장생활(학교결석,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의 경제 관리에 대한 문제, 음주와 질환발생의 문제, 가정이나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음주가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대안적 절주 및 단주 모임의 형태를 선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음주문화와 형태에 대해 대중매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금연사업을 할 때의 사회적 여러 가지 제약과 운동의 경우처럼 대중매체의 음주관련 미화의 내용이나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와 장면은 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절주 교육 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건이며, 교육적 자료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1. 이규영, 이상익(2000) 대학신입생의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병리학 제9권 제2호 157~167
2. 김희경, 최은숙, 안정선(2004)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205~216
3. 직장인을 위한 건강 음주 세미나 (2004) 울산 알코올 상담 센터
4. 김용석(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 행위/음주문제간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9집
5. 양정희(2001) 음주가 끼치는 영향의 차이. 가정의학회지 제22권 제11호
6. 김영란(1999) 대학생 음주 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제25권 제2호 24~33
7. 이원재(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제10집 pp79-95
8. Linda Feldman, R.N., M.Sc.N., 외(1999) Alcohol use believes and behaviors among highschool. students. J. of Adolescent Health 1999;24:48-58
9. 김남초, 양수 외(2003)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인식,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56-64. 3월호
10. 김경, 사회복지(1997) 청소년 음주의 실태에 관한 연구. 국제 문화 학회, 역사와 사회
11. 산업보건 17호 '자녀들과 음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자(1)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12. 이원재(2003) 대학생 문제음주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09~124
13. 한태선(2000) 적정음주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제26권 제4호 383~392
14. 유순화, 정규석(2003) 청소년 음주, 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2호 195~214
15. 송경애, 김남초(2003) 교사의 음주관련 특성과 청소년 음주에 대한 인식, 태도 교육요구도.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16. 문정순, 양수(2001) 서울 시내 초등학교생들의 음주에 관한 지식 및 태도.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285~300
17. 문정순, 양수(2000) 초등학교생의 음주예방 보건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68~79
18. 김용석(1999)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청소년 음주 실태. 현실과 정신적 연구
19. 한성현, 한동우(2001) 청소년의 음주 관련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제27권 제2호 130-143
20. 박설훈(2001) 일개 직장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제22권 제12호